

KDB리포트

KDB Report

이슈브리프

트럼프의 연준 구성 변화 시도와 미국 통화정책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 현황 및 시장 전망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 및 10월 전망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트럼프의 연준 구성 변화 시도와 미국 통화정책	1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 현황 및 시장 전망	4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 및 10월 전망	7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0
--------------------	----



트럼프의 연준 구성 변화 시도와 미국 통화정책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미 연준은 '25.9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과 스티븐 마이런 이사 선임 등에도 향후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
- ◆ 연준의 독립성과 최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관련 마찰이 지속되며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가운데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연준 내부에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17년~'20년) 당시에도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금리가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
 - 재집권 후에도 연준을 압박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A. Kugler) 후임으로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S. Miran)을 임명('25.9.16일)
 - *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으며 2기 집권과 함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최측근 인사로 분류
 - 또한 연준 내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리사 쿡(L. Cook, '38.1.31일 임기 만료 예정) 이사를 부동산 대출 관련 사기 의혹을 근거로 해임 시도*
 - * 쿡 이사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쿡 이사 해임 통보 무효 판결
- 스티븐 마이런과 리사 쿡 이사가 모두 참석한 '25.9월 FOMC에서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
 - 연준은 '24.9월 기준금리 인하 개시 후 '24.12월까지 총 100bp 인하(5.50%→4.50%) 및 추가 인하를 예고*했으나, 이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근거로 9개월 간 동결
 - * '24.12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25년 중 금리인하 예상 횟수를 3~4회로 제시해 당시 금융시장은 '25년 중 분기당 1회 정도의 속도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적 성격의 금리인하임을 강조
 -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50bp 인하를 주장해 보다 빠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 연준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 대통령의 통화정책 간섭은 불가능에 가까움

- 연준 구성원의 지위는 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상당히 복잡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
 - 연준 이사(7인)의 임기는 14년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나 상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장(임기 4년, 이사로서의 임기 내 연임 가능)은 이사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역시 상원 과반의 동의 필요
 - 각 이사의 임기는 매 짝수해 1.31일에 종료되도록 규정돼 있어 7인의 이사가 모두 교체되는데 대통령 연임 임기(8년)보다 긴 14년 소요
 - 이사가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사임한 이사의 임기까지만 재직*할 수 있어 대통령이 단일 임기(4년) 중 2명 이상의 14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사 선임은 불가능
 - * 스티븐 마이런 이사의 경우 전임 쿠글러 이사의 기존 임기인 '26.1.31일까지만 재임 가능하며 새 임기 14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지명과 의회 재동의 필요
- 이사와 함께 FOMC를 구성하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지역 연은) 총재*는 각 지역 연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지명하고 연준 이사회가 인준하여 결정
 - * FOMC(총 12명 참석)는 이사 7인과 뉴욕 연은 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뉴욕을 제외한 11개 지역 연은 총재 중 4인이 매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참석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명단

직책	성명	현 직위 취임일	현 직위 임기 만료일	비고
의장	제롬 파월(J. Powell)	'18.1.5일	'26.5.23일	이사 임기 만료 '28.1.31일
이사	스티븐 마이런(S. Miran)	'25.9.16일	'26.1.31일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C. Waller)	'20.12.18일	'30.1.31일	
이사	마이클 바(M. Barr)	'22.7.19일	'32.1.31일	
이사	미셸 보우먼(M. Bowman)	'20.1.30일	'34.1.31일	
이사	필립 제퍼슨(P. Jefferson)	'22.5.23일	'36.1.31일	
이사	리사 쿡(L. Cook)	'23.9.8일	'38.1.31일	
뉴욕 ¹⁾	존 윌리엄스(J. Williams)	'18.6.18일	- ²⁾	FOMC 당연직 부의장
보스턴	수잔 콜린스(S. Collins)	'22.7.1일	-	'25년 FOMC 위원
시카고	오스틴 굴스비(A. Goolsbee)	'23.1.9일	-	'25년 FOMC 위원
세인트루이스	알베르토 무살렘(A. Musalem)	'24.4.2일	-	'25년 FOMC 위원
캔사스시티	제프리 슈미트(J. Schmid)	'23.8.21일	-	'25년 FOMC 위원
클리블랜드	베스 헤멕(B. Hammack)	'24.8.21일	-	'26년 FOMC 위원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카리(N. Kashkari)	'16.1.1일	-	'26년 FOMC 위원
댈러스	로리 로건(L. Logan)	'22.8.22일	-	'26년 FOMC 위원
필라델피아	앤나 풀슨(A. Poulson)	'25.7.1일	-	'26년 FOMC 위원
애틀란타	라파엘 보스틱(R. Bostic)	'17.6.5일	-	'27년 FOMC 위원
리치몬드	토마스 바킨(T. Barkin)	'18.1.1일	-	'27년 FOMC 위원
샌프란시스코	메리 달리(M. Daly)	'18.10.1일	-	'27년 FOMC 위원

주 1 : 각 지역명은 해당 지역 연은 총재를 의미
 주 2 : 지역 연은 총재의 임기는 1 혹은 6으로 끝나는 해('26년, '31년 등)에 갱신되며 만 65세까지 횡수 관계 없이 연임 가능
 자료 : 연방준비제도

□ 향후 추가 금리인하는 물가·고용 등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연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파월 의장이 이사로서의 남은 임기('28.1.31일)를 채우지 않고 의장 임기 만료 ('26.5.23일) 후 사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이사 1인과 의장(해당 시점의 이사 7인 중) 임명 가능
 - * 연준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쳐도 이사로서의 잔여 임기가 있으면 이사로 재직 가능하며 실제 사례(M. Eccles)도 존재
 - FOMC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으로 이사 7인 중 2인의 의사만을 반영한 빠른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며 지역 연은 총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외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파월 의장은 '25.9월 FOMC에서 50bp 인하 의견은 소수였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주요 지표에 따른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
 -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하는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 표명(9.23일)
 - 굴스비(A.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 개진(9.24일)
- 연준은 정책 참고지표인 고용 및 물가 상황을 참고하며 완만한 속도*로 금리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
 - * '25.9월 점도표에 따르면 '25년은 추가 2회, '26년에는 1회 금리인하 예상
 -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심화·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 현황 및 시장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혜주 (heyjude@kdb.co.kr)

- ◆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비수술적으로 색소 제거, 탄력 개선 등을 유도하는 기기로, 시술 편의성이 높아 시술 건수 증가 추세
- ◆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활발한 M&A 거래 등을 토대로 안정적 성장세 전망

□ 피부 관리 수요 확대에 따라 미용의료시술 증가 추세

- 미용의료시술은 대표적으로 에너지기반과 비에너지기반으로 분류됨
 -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Energy Based Device, 이하 EBD)는 외과적 수술 없이 에너지 자극을 통해 피부재생 및 탄력 등을 유도하는 기기
 - 비에너지기반 미용의료시술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독신, 필러 등과 같이 물리적 침습 및 화학적 작용을 통해 피부를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시술
-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피부 노화 관리 수요 확대, 젊은 세대의 예방적 조기 관리 트렌드 등으로 미용의료시술 건수 증가 추세*
 - * 글로벌 미용의료시술 건수(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 ('22년)1,880만건→('23년)1,910만건→('24년)2,050만건
 - 특히 EBD는 짧은 회복시간 및 자연스러운 개선을 장점으로 시술 진입장벽을 낮추며 높은 선호도 확보

□ 에너지기반 미용시술은 노화된 피부에 콜라겐 생성 등을 유도하여 탄력 개선

-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 등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화가 진행되며 색소침착, 탄력 저하, 주름 등의 변화 발생
 - (표피) 세포 재생속도 감소로 보호장벽 손상 및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기미 발생
 - (진피) 섬유아세포* 감소로 인한 콜라겐, 탄력섬유 감소로 탄력 저하
 - * 결합조직의 주요 활성세포로, 콜라겐, 탄력섬유 등의 진피 구성성분 생성
 - (피하지방) 지방 세포 수 및 부피 감소로 인한 볼륨 축소
 - (SMAS*) 근막층 이완으로 안면 조직 지지력 약화되어 피부 처짐 발생
 - * Superficial Muscularaponeurotic System, 얼굴 근육과 진피를 서로 연결하는 근막 체계로, 콜라겐, 탄력섬유 및 지방으로 이루어짐

- 노화된 진피 및 SMAS에 열자극 시 콜라겐 및 탄력섬유 수축과 생성이 유도됨
 - (콜라겐 수축) 약 60~70℃의 열자극 시, 단백질로 구성된 콜라겐이 변성 및 수축되며 피부 타이팅 및 리프팅 효과 유도
 - (콜라겐 생성) 대식세포는 열자극으로 손상된 조직을 분해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 증식을 촉진하며, 이후 생성된 콜라겐은 주변 단백질과 교차결합을 형성해 피부 탄력 개선에 기여
- EBD에는 대표적으로 레이저, RF, HIFU가 있으며 각각 빛, 고주파, 초음파를 활용하여 다양한 피부 문제 및 노화 증상 개선
 - (레이저) 증폭된 빛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하여, 색소제거, 제모, 여드름 흉터 등의 피부 문제 개선에 활용
 - (RF, Radio Frequency) 비침습* 및 침습**으로 분류되며, 고주파를 이용해 수분 입자를 진동시켜 발생한 마찰열으로 콜라겐 수축 및 재생 유도
 - * 피부절개 또는 구멍을 내지 않고 진피층 광범위한 영역에 RF로 열을 발생시킴
 - ** 최소한의 침습으로 진피층에 마이크로니들을 삽입하여 RF로 열을 발생시킴
 - (HIFU,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특정 부위에 열 응고점을 형성함으로써 국소적으로 열 손상을 유발하여 콜라겐 수축·재생 및 근막 수축 유도

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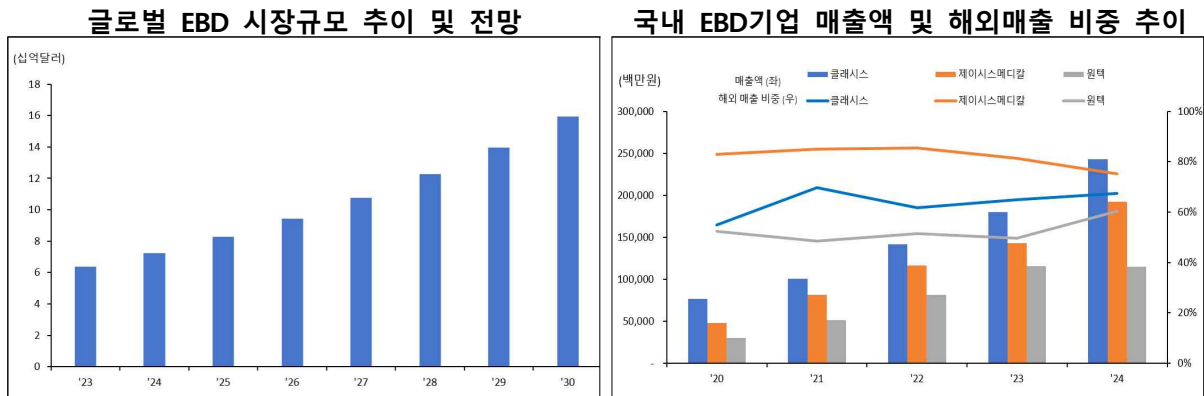
	레이저	RF		HIFU
		비침습	침습	
에너지원	강한 파장의 빛	고주파		초음파
목표부위	표피	진피		진피, SMAS
시술 목적	여드름 흉터, 기미 등 색소치료	피부 탄력 회복	모공, 흉터 치료 피부 탄력 회복	피부 탄력 회복
해외 대표 기업 (브랜드)	칸델라 시네론 (젠틀맥스)	솔타메디칼 (써마지)	인모드 (모피우스)	멀츠 (울세라)
국내 대표 기업(브랜드)	루트로닉 (클라리티II)	원텍 (올리지오)	제이시스 메디칼 (포텐자)	클래시스 (슈링크)
소모품 여부 ^{주)}	X	O	O	O

주 : RF 및 HIFU 장비 사용 시 소모품인 카트리지가 사용이 필수로, 구조상 Lock-in 효과가 강해 장비 설치 기반 확대 시 소모품 판매로 수익성 확보 가능

자료 : 각 사, 미래에셋증권(2024,2025) 참고하여 당행 재작성

□ EBD 시장은 미용의료기술 수요 증가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글로벌 EBD 산업 시장 규모는 '23년 약 63.6억 달러이며, 연평균 14% 성장하여 '30년 159.3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고령인구 증가, 젊은 세대의 피부 관리 수요 확대, 비만치료제로 체중 감량 후 발생하는 탄력 저하 등은 EBD 시장의 성장 기회로 작용 가능
 - 기업 간 경쟁은 기술 고도화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술효과,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 발전 중



자료 : Grand View Research(2024)

주 : 연결 기준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2021-2025)

- 국내 EBD 기업은 글로벌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매출액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견조한 실적 흐름 지속 전망
 - ※ 국내 EBD 시장규모(Grand View Research) : ('22년) 2억달러 → ('30년)7.1억달러 (CAGR 17.1%)
 - 클래시스, 제이시스메디칼, 원텍 등 대표적인 국내 EBD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50% 이상이며, 미국, 일본, 브라질, 태국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활발
 - 기술력, 사업성 등이 글로벌 PE 등에게 인정받아 M&A가 활발히 진행되며, 기업 가치 상승 기회로 작용 가능
 - 수요 증가 및 M&A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 등 국내 EBD 기업에게 안정적 시장 환경 지속 전망

국내 EBD 기업 M&A 현황

EBD 기업	인수사	인수년월	거래금액 (단위 : 억원)
클래시스	베인캐피탈(美)	'22.4월	6,699
루트로닉	한앤컴퍼니	'23.6월	9,645
사이노슈어(美)	한앤컴퍼니-루트로닉	'24.1월	3,500
제이시스메디칼	아키메드(佛)	'24.6월	2,336
이루다	클래시스	'24.4월	405
비올	VIG파트너스	'25.6월	2,538

주 : 국내 EBD 기업은 볼드체로 표시
자료 : 언론보도 종합

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 및 10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심한용 (hyshim@kdb.co.kr)

- ◆ (환율) 9월 원/달러 환율은 약달러 환경 지속에도 한미 무역합의 관련 불확실성으로 상승, 10월은 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대미 수출 부진 지속으로 박스권 등락 전망
- ◆ (금리) 9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 10월 미국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로 하락할 전망이나, 일본 및 유로존은 상승 전망
- ◆ (주가) 9월 주요국 주가는 美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 10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개시 등이 조정 요인

□ 9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美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ECB와 BOJ는 금리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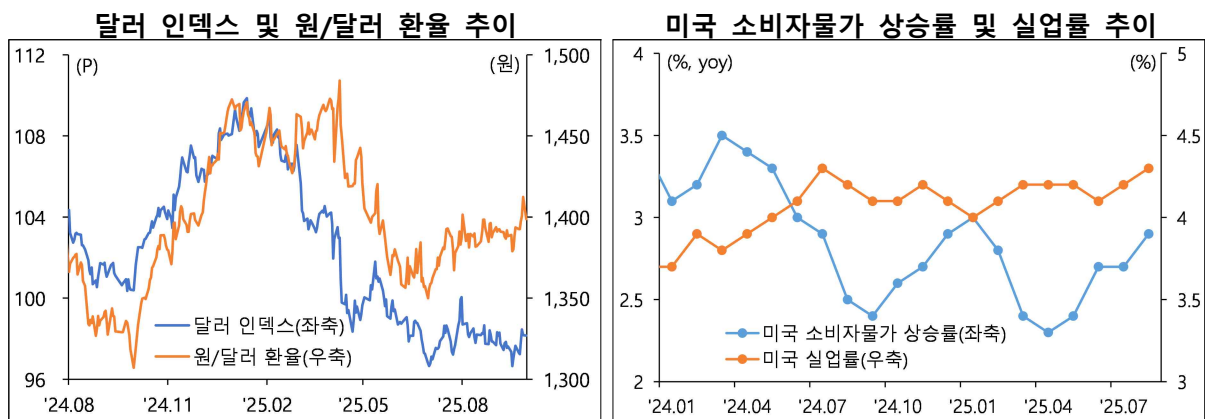
- 美 연준은 FOMC(17~18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4.25~4.50% → 4.00~4.25%)
 -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 현실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 실업률과 물가 전망치**는 유지
 - * 美 비농업고용 전월차(만명) : 17.7('25.4월) → 13.9(5월) → 14.7(6월) → 7.3(7월) → 2.2(8월)
 - ** '25년 美 성장률/근원물가상승률/실업률 전망치('25.6월 → 9월, %) : 1.4/3.0/4.5 → 1.6/3.0/4.5
 - 파월 의장은 상품 부문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를 실시할 필요성은 낮다는 견해를 제시
 - *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3('25.4월) → 2.4(5월) → 2.7(6월) → 2.7(7월) → 2.9(8월)
- BOJ는 금융정책회의(18~19일)에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단기금리 0.50%)
 -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美 관세정책이 일본 기업과 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 동결
 - '24.3월 '양적·질적완화' 정책을 종료하며 매입 조치를 중단한 기타자산의 매각* 개시 결정, 우에다 총재는 경제·물가 전망 현실화시 금리인상 실시를 시사
 - * BOJ 보유 기타자산 年 매각 규모/총 보유액 : (ETF) 3,300억엔/37조엔 (J-REITS) 50억엔/6,500억엔
-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11일)에서 2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 (수신금리 2.00%)
 - 물가상승률* 안정과 역내 실물경기 회복세로 만장일치 금리 동결, 대미 무역합의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 * 유로존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 yoy) : 2.2('25.3월) → 2.2(4월) → 1.9(5월) → 2.0(6월) → 2.0(7월) → 2.0(8월)
 - ** '25년 ECB 경제성장률 전망치('25.6월 → 9월, %) : 0.9 → 1.2
 - 라가르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끝났다고 언급하며 금리동결 지속을 시사하였으나, 향후 물가 전망은 美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

□ '25.10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FOMC(28~29일) : 연준은 9월 점도표*를 통하여 '25년중 2회, '26년 추가 1회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시장도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기대**
 - * FOMC 점도표상 기준금리 상단 전망 중간값(% '25년말/'26년말) : 4.00/3.75('25.6월) → 3.75/3.50(9월)
 - **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10월 FOMC 25bp 인하 확률은 89.8%('25.9.30일)
- 한국, 금통위(23일) : 물가상승률*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8월 금통위 의사록(16일)에서 드러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세** 반등 관측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 속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1('25.3월) → 2.1(4월) → 1.9(5월) → 2.2(6월) → 2.1(7월) → 1.7(8월)
 - ** 가계부채 증가액(조원, 전월比) : 4.2('25.2월) → 0.7(3월) → 5.3(4월) → 5.9(5월) → 6.5(6월) → 2.3(7월) → 4.7(8월)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 (환율) 9월 원/달러 환율은 약달러 환경에도 한·미 무역합의의 불확실성으로 상승, 10월은 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對美 수출 부진으로 박스권 등락 전망
 - 9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약달러 지속에도 한·미 무역협정 후속 합의의 불확실성 등으로 월중 일시 1,400원을 상회*하며 상승
 - * 원/달러 환율은 '25.9.26일자 종가 기준 1,412.4원을 기록
 - 10월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하방 요인이나, 對美 수출* 부진 지속과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포함한 무역협정 후속 합의의 불확실성 등으로 1,400원 수준에서 등락 전망
 - * 전체/對美수출 증가율(% , yoy) : △1.3/△4.4('25.5월) → 4.4/△3.8(6월) → 5.7/△3.1(7월) → 1.2/△4.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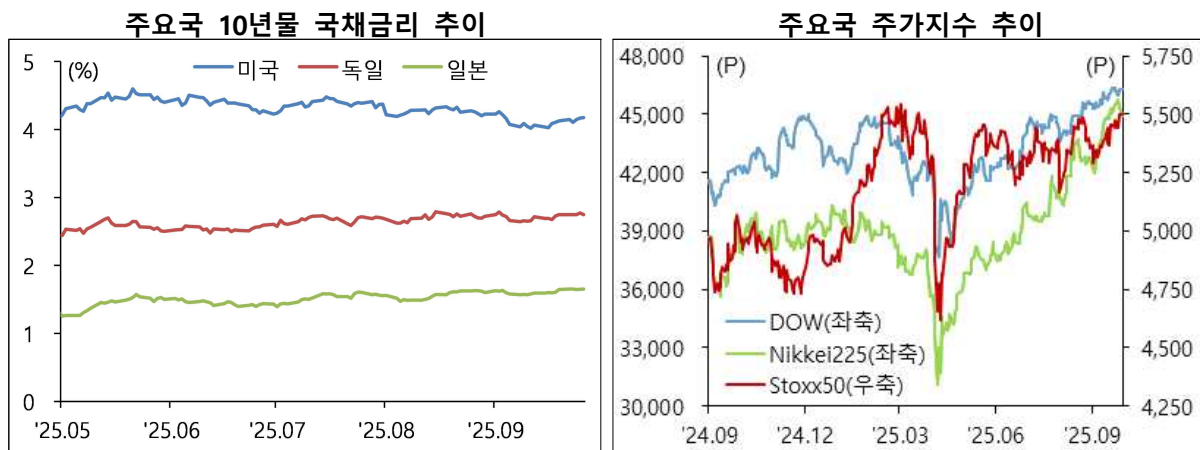


	'23년말	'24년말	'25.8월말	'25.9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94.5	1,472.5	1,390.1	1,398.7	+0.6%
달러 인덱스	101.47	108.09	97.86	98.15	+0.3%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9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 10월 미국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다, 일본 및 유로존은 상승 전망
 - 9월 미국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 유로존 금리는 프랑스 재정위기* 우려 등의 상방 요인에도 독일 경제 역성장('25.2Q Δ 0.2%) 등으로 보합세, 일본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 표명(7일) 등 정치적 불안 요인 등으로 상승
 - *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24년말 GDP의 113% 수준인 국가부채, 과도한 재정적자, 예산안 삭감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 등으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12일)
 - 10월 미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유로존은 ECB 기준금리 동결 예상과 역내 국가 재정위기 우려 지속으로 상승 예상, 일본은 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

- (주가) 9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 등으로 상승, 10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개시 등이 조정 요인
 - 9월 주요국 주가는 美 연방정부의 섀다운 우려*에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 美·中 정상회담 합의(19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 * '26년 예산안 및 임시예산안 관련 공화당-민주당 간 이견으로 연방정부 운영 중단 가능성 대두
 - 10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 아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트럼프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유로존 재정 불안 등이 조정 요인
 - * 의약품(50%), 대형트럭(25%), 주방 캐비닛·욕실 세면대(50%) 등에 10.1일부터 관세 부과 발표(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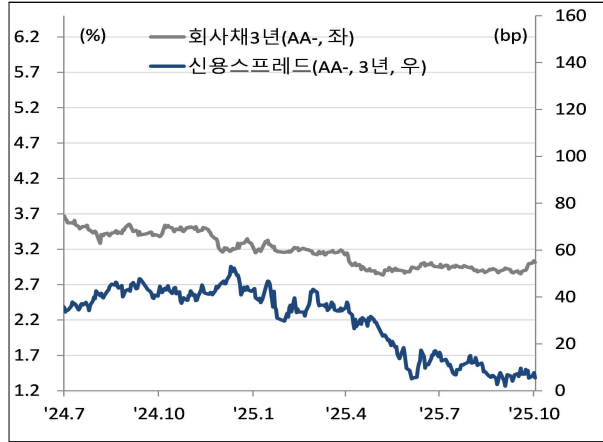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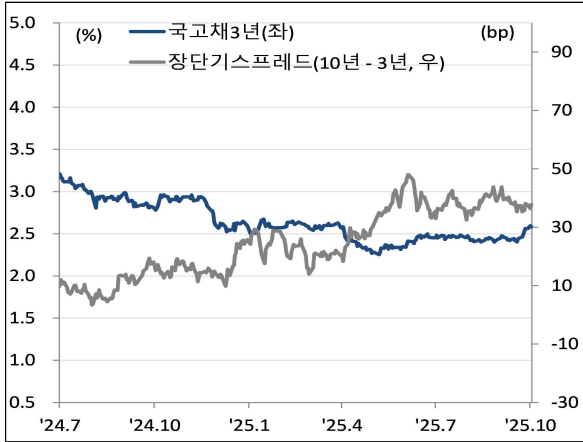


	'23년말	'24년말	'25.8월말	'25.9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97	4.533	4.228	4.154	Δ 1.8%
독일채 10y	1.979	2.367	2.724	2.712	+0.3%
일본채 10y	0.623	1.101	1.602	1.652	+3.1%
다우존스	37,385.97	42,573.73	45,544.88	46,247.29	+1.5%
유로 Stoxx 50	4,521.47	4,869.28	5,351.73	5,499.70	+2.8%
Nikkei 225	33,169.05	39,894.54	42,718.47	44,932.28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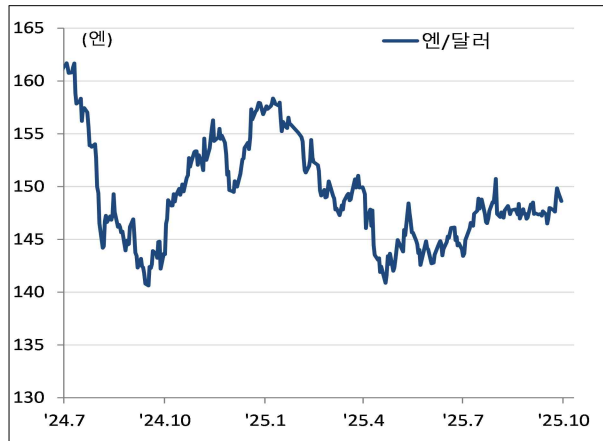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금리 · 환율 · 주가

금 리 국고채3년 2.581% (13.8bp ↑), 신용스프레드 5.5bp (1.8bp ↓)



환 율 원/달러 1,420.2원 (31.2원 ↑), 엔/달러 153.0엔 (5.69엔 ↑)



주 가 코스피 3,601.7pt (5.71% ↑), 코스닥지수 858.5pt (0.68%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KDB리포트

KDB Report

제1078호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37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